

# 전라북도 유일 마취하 전기자극치료 (M-ECT)

## 이제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로 전라북도에서는 마음사랑병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가요?



### 치료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전기자극치료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많은 환자들이 2-3회의 치료를 받고부터  
증상의 호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2~3회, 경과에 따라 5~10회 시행, 20~30분 소요

### 전기자극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경우

- 약물 등 기존의 치료로 큰 호전이 없는 경우
-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
- 빠른 증상 호전을 필요로 할 때
- 식사를 거부하거나 탈진 상태에 이른 경우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임신으로 약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약물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문의 : 063 - 240 - 2100 (외래진료 후 치료 결정)

# 마음사랑

2019 가을호  
VOL.90

마음사랑 소식지는 열린마음, 밝은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Cover Story\_ 마음사랑병원 '스마일캠페인'**  
 마음사랑병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직원들의 친절, 사랑 그리고 새 희망의 미소입니다.



## 소식지 가을 마음사랑

### CONTENTS

<b>인사말</b>		
여는 글	가슴에서 가슴으로 Heart to Heart	04
<b>건강</b>		
건강 길라잡이	세대간 건강한 이해와 소통	06
메디컬 칼럼	키친 드링크어를 알고 계시나요?	08
<b>기획</b>		
기획이슈	고객과 함께 걸어온 마음사랑병원 25년의 역사	10
<b>브릿지</b>		
내 마음의 쉼표	마음사랑 환자를 위한 마음의 쉼터 & 치유의 공간	14
<b>정보</b>		
휴(休)	세한도(歲寒圖)	16
<b>스토리</b>		
고맙습니다	소중한 딸의 직장을 다녀와서	18
마음나누기-1	단주만이 살길이다	20
마음나누기-2	우리함께 삼총사, 따뜻한 회복을 노래하다	22
열정 36.5℃	고마운 사람들 '주임간호사'	24
<b>뉴스&amp;안내</b>		
마음사랑뉴스	뉴스/재단소식	26
<b>Information</b>	월례교육	32
	셔틀버스안내	33
	마음사랑후원회	34
	심신치료센터	35

마음사랑 소식지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병원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본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사랑 소식지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2019년 가을호 VOL.90


발행처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5534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465-23 Soyangro, Soyangmyeon, Wanjugun, Jeonbuk, Korea 55347  
 발행인 정운진 발행일 2019년 8월 30일 전화 063) 240-2100 팩스 063) 240-2117  
 기획·편집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기획팀(홍보위원회) 디자인 제작 (주)크리에이티브애드 창 02) 3446-9379~80

# 가슴에서 가슴으로 Heart to Heart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 볼트 테일러(Jill Bolte Taylor)라는 하버드대학 뇌 과학자가 쓴 책 이름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오빠가 이런저런 이상증상을 보이다가 31세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기에 그런 오빠를 보며 사람의 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한편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단체의 임원으로 열심히 일하던 중, 37세의 나이에 뇌출혈을 겪게 됩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몸이 저릿저릿하며 감각이 마비되고, 언어능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지요. 자신에게 뇌졸중이 일어나는 순간 ‘갑소사 뇌졸중이야. 내가 뇌졸중에 걸렸어. 우와 이거 멋진 경험을 하겠군.’ 하는 생각에 흥미롭기도 했다는 타고난 과학자입니다. 왼쪽 뇌 출혈부위 수술을 받고 8년간의 투병생활 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 좌뇌의 기능이 무너져 내리고 우뇌만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면서, 분별하고 구별하는 좌뇌의 간섭 없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지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녀는 투병 중 의식은 없어도 감각은 깨어있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보는 치료진으로부터는 많은 에너지를 받아 고마움을 느꼈고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돌볼 때는 지극히 따스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명칭한 사람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고 크게 소리치는 사람에게는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돌봐주는 경우에는 자신의 에너지가 많이 빼앗기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유명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한다’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매순간 삶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책임지라고...

백○○과장님 보고 싶어요. 여자병동의 말썹꾸러기? 환자가 전에 일하셨던 의사선생님을 거명하며 우는 소리로 말합니다. 옆의 환자들은 또, 그만 둘 때 애가 둘 있었고 임신했었으니 지금 셋일 텐데 잘 키우고 있나 궁금하다는 등 거들구요. 그들의 그리워하는 마음이 말끝에 고스란히 묻어나 무더운 여름,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선생님께 병원에 놀러와 그들을 만나주시라고 부탁했더니, 병원을 떠날 때 그들을 보면 울 것 같아 제대로 인사도 못 했다며 기꺼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게 만나 환자와 함께 서로 울먹이며 안부를 묻는 장면은 정말 뭉클했지요. 환자뿐 아니라 직원들도 무척 반가워했는데 아, 모두들 그분의 좋은 에너지를 진즉 느꼈던 모양입니다. 저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눈 후,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고 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게 되는 한편, 순수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마음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고 나를 다독이며 주위를 살핀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린 훨씬 따스한 마음을 나누며 더 깊은 사랑과 평화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 마음에 걸려 불편할 땐 늘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좌뇌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심호흡 크게 하며 잠시 머물다보면 마음은 어느새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하! 마음이 아프고 다쳐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저희들이 그들의 가슴을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따스한 위로와 사랑의 에너지를 저희 가슴에서 그들의 가슴에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할 것인지 날마다 마음모아 노력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의 가을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길 빌며 사랑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김성의 이사장





## 세대간 건강한 이해와 소통

2018년 11월 16일 1쇄를 찍었는데 현재 30쇄를 넘게 찍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는 필독서가 된 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제 90년대 생들이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그리고 우리 시대 새로운 소비의 주체로 활동하는 시기가 되면서 이들과 잘 지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인데, 기존 세대의 입장에서는 90년대 생들의 행동이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기성세대가 해왔던 것처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조직 문화만을 강요했다가는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9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보다는 10분짜리 요약된 클립 영상을 선택하고, 줄임말에 능숙하며,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단순한 것, 재미있는 것, 솔직한 것을 추구한다는 새로운 세대가 멋져 보이면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남인 진료과장

소통과 이해가 필수 요소인 정신과 의사로서 저 역시 늘 이들과 가깝고 친해지고 싶지만 왠지 이들의 문화가 낯설고 어려운 것 같아, 먼저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는 데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우연이 이 책을 만나고 마치 시험 대비 기출 문제집이라도 발견한 것 같은 심정으로 책을 사서 읽었던 것을 생각하니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이제 꼰대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씩씩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세대 갈등에 대해서 잘 표현한 작가의 말에, 속으로 몇 번이나 ‘맞아! 맞아!’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세대의 솔직함을 대하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우리 역시 솔직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빠른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이루면서 형식과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보여지는 형식보다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더 공감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병맛’(보기에 어울리지 않은, 딱히 옳은 부분이 없는, 듣거나 읽는 사람으로부터 별개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는 등의 뜻), ‘B급 문화’가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조금 부족해 보이거나 어설피 보이는 것들도 이들의 진심을 얻는데 효과적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년이 된 나이에 이들과 맞추기 위해 꼭 저질해지고 과도하게 솔직해질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그런 용기를 내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함에 따라 생각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회라면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생소한 것을 싫어하며 나이를 먹을수록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잣대로 평가하여 ‘틀렸다’고 바라보는 순간 세대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만 하고 상대만을 탓한다면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세대 간 갈등 없는 사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선사시대 동굴에도 ‘요즘 젊은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적혀있었다고 하죠. ‘상대가 나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함께 해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의지와 열린 자세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지병수 할아버지가 세대를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흐뭇한 재미와 감동을 준 이유입니다. 고대 로마의 2대 희극작가 중 한 명인 플라우투스는 “겸손해지면 청년이 된다.” 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피며 경청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노력의 시작이 아닐까요?





# 키친 드링커 Kitchen Drinker 알고 계시나요?

## 여성의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하여

알코올 사용장애는 문제적 음주 행위를 지칭하는 알코올 중독의 공식 진단명이며 서양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다.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요 정신질환 중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2.2%로 가장 높은 반면, 해당 질환 환자의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코올 사용장애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상식과는 달리 여성에서의 유병률도 남성 대비 1/3 이상(여 6.4%, 남 18.1%)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 음주 문제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 환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는 해마다 감소 추세인 것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여러 이유로 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성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 혼자 부엌에서 술을 마시는 주부를 일컫는 '키친 드링커(Kitchen Drinker)'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치료센터 센터장  
박준 진료과장

여성의 음주 문제는 발병원인부터 남성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들은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갈등, 자녀 양육과 가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다른 원인 없이 알코올 사용장애 자체가 1차 질환인 경우가 많은 남성과는 다르다. 또한 여성들은 신체 특성상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알코올 의존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알코올성 간 질환과 같은 음주 관련 질환의 발병이나 사망 가능성도 더 높다. **게다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이나 가족 구성원의 보호에 더 큰 책임을 맡고 있어 중독된 여성들은 남성보다 이혼, 별거와 같은 가족의 해체를 더 많이 경험한다.**

여성의 음주 문제는 여러 면에서 폐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강해 음주 문제를 숨기려 하며,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지지체계도 남성들보다 부족해 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 환자의 특성과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치료가 있어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환자 스스로가 음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치료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음주 문화에 관대하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장애를 뇌의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자발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는 음주를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실패를 거듭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치료는 일시적 격리나 약물 복용만으로는 어렵다. 사회, 심리, 생물학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음주 문제를 이해하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기저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음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세심하게 평가하고 자기혐오와 수치심, 가족들을 향한 분노와 양가감정을 잘 다뤄주어 오로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환자로 인해 소진된 가족들의 치료와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지친 가족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 환자를 비난하기만 하거나 무력감에 빠져 끌려 다니느라 환자의 변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익혀야 한다.

마음사랑병원은 중독 환자의 특성과 치료원칙에 맞게 특화된 중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단주 직후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에 대한 해독치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단주를 위한 치료가 시작된다. 회복률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중독 치료 전문가들이 동기강화면담, 중독학 교육, 전인화 교육, 12단계 촉진치료, 분노조절훈련, 회복자들과의 모임, 가족 치료 등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심리사회적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임은 분명하나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에 매진한 결과 단주를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삶은 사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전문 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술 없는 인생 후반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믿는다.❤️

마음사랑병원 중독상담실 063-240-2134  
마음사랑병원 고객상담센터 063-240-2114 (24시간 상담)

# 고객과 함께 걸어온 마음사랑병원 25년의 역사

글 | 용태영 기획팀장



1994  
8월 1일

전북도립소양  
신경정신병원  
개설(200병상)

설립자: 이병관 이사장

1999

• 명칭변경 마음사랑병원



• 2동(신관) 증축개관  
(631병상)



• 아이사랑 어린이집 개소



2003-2004

• 정신의학 연구소 개소



• 1동(본관) 리모델링개소



•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병원>인증  
• 한국 서비스기업문화  
최우수상 수상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

2007

• 치료정원 오픈  
(1동/본관, 2동/신관)



• 정읍시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 평생학습대상 기업부문  
우수상 수상

2010

• 양한방 협진(한방치료) 시행  
• 재활치료센터 마음드림 개소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주간라디오 연설에 마음사랑병원  
치료환경 및 조직문화 칭찬

• 보건의 날 유공자 포상 국민포장  
• 근로자의 날 국무총리상 포상  
• 노사한누리상 수상  
• 가족친화경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기업학습 우수사례 기관선정

2011-2013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  
위탁운영 협약 및 개소

• 인구의 날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포상  
- 국무총리표창

2015

• 1동(본관) 리모델링  
현재 마음클리닉, 중독치료센터



• 낮병원 '우리함께' 개소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최우수기관 장관상 수상

2017

• 2동(신관) 급성기 병동  
리모델링



•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인산의료재단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개설



2002

치매 및 알코올병동 개소



로비 및 접수공간 리모델링



허브카페 오픈



•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대통령상 수상  
• 노사문화우수기업 우수상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2006

• 여성부장관상 수상  
•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  
• 작업장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2008-2009

1동(인산관) 증축 개관

햇살클리닉, 중독치료센터, 의국,  
전공의기숙사, 회의실 등



안주군정신건강증진 센터  
위탁운영

•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1주기  
• 지역거점공공병원 Q진전대회  
장관상 수상

2014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위탁운영



고객상담센터 운영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 치매극복의날 장관상 수상  
• 올해의 여성상 수상  
• 인권교육전문기관 장관상 수상

2016

조리실 리모델링



보일러 시설 교체



마취하 전기자극치료  
시행(전라북도 유일)



• 대한병원협회장 표창 수상  
•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2주기  
• 임산부의 날 유공 장관상 수상

2018



2019

2019

• 1동(본관) 앞 '치유정원' 오픈



• 독서문화유공 장관표창



2019년 마음사랑병원

1994년, 200병상으로 시작한 <도립소양 신경정신병원>은 현재 631병상의 최고의 정신의료기관 <마음사랑병원>이 되었습니다. 고객의 사랑, 지역사회 관심, 임직원의 노력 속에 성장해온 병원의 지난 25년을 되돌아보고, 환자와 가족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내일을 그려봅니다.

### 회복을 위한 자연친화적 치료환경 조성 <정신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환경이 아름다워지면 환자들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치료공간과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의 행복을 위한 대장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병동 내 폭포, 벽천, 실내정원 등을 조성하여 정신과 환자는 위협하다는 편견을 깨고 진정한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은 환자들이 병원의 아름다운 환경을 더욱 사랑하며 가꾸고, 이를 통해 마음의 편안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사랑병원은 정신과 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고, 정신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 따뜻한 치료 분위기 형성 <“사랑합니다”, 마음사랑병원>

1999년에는 신관을 증축(631병상)하였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치료하자는 취지로 ‘마음사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객에게 한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최초로 서비스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환자와 가족의 아픈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전파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따뜻한 치료적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 <드림브릿지>

마음사랑병원은 환자들이 회복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 복귀를 치료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치료시스템 <드림브릿지>를 바탕으로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회복귀까지 통합 연계하여, 환자 한분 한분이 건강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낮병원 우리함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공동생활가정 : 아름다운집·행복한집·꿈이있는집(3개그룹홈)>과 함께하여 취업을 통해 사회로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전문가를 배출하는 수련병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정신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수련 및 교육을 통하여 정신건강전문가(전문의, 전문요원)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전북지역 정신병원에서는 유일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육성하고 있고,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치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후원, 홍보활동 등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직원이 행복한 병원

마음사랑병원은 열린 경영을 통한 신뢰구축, 상생의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형성, 직원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및 복지 등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병원으로도 유명합니다.

### 30여개의 수상과 인증 <사랑과 보람 속에 성장하는 병원>

정신병원 최초의 한국서비스품질 우수병원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기관 인증, 정신의료기관 1주기/2주기 인증, 그리고 경영진의 국민포장과 올해의 여성상 까지! 30여 개의 수상과 인증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성공적인 치료사례들과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던 재활시스템을 배우고 간다는 많은 분의 견학소감은 마음사랑병원의 자랑이며, 직원들의 보람입니다.

### 정신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병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25년 간 ‘도립소양 신경정신병원&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사랑병원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에 더 나아가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마음깊이 새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의료의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고, 새로운 10년! 새로운 20년! 먼저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병관 명예이사장

신경정신과 전문의  
양/한 의학박사  
現 전주 대자인병원장  
現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1994년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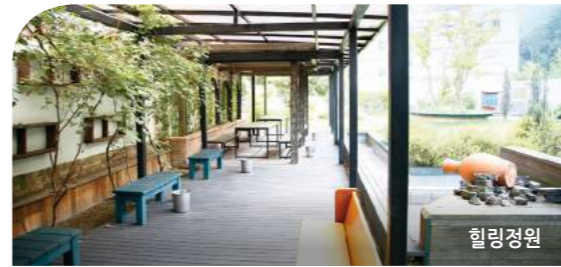
전북도민을 위한 정신의료시설이 빈약했던 당시, 이병관 명예이사장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산의료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994년 병원 부지와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비롯한 비품 일체를 기부하여 도립소양정신병원을 위탁받아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0,476㎡ (3,175평)의 토지 기부채납을 시작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에 건물 및 토지를 기부하여 현재의 마음사랑병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정신의료에서 만큼은 전국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전주시에 부지를 기부하여 정신재활센터인 <아름다운세상>을 개설하였고, 환자들의 사회복귀에 앞장서는 정신병원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습니다.

토지·건물 기부채납: 14,575㎡ (4,472평) / 개원 ~ 2018년

# 마음사랑 환자를 위한 마음의 심터 & 치유의 공간

유명 휴양지 부럽지 않은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마음사랑병원 환자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며 빠른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불안과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환자의 특성상,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원에서는 치유정원, 힐링정원, 하늘정원을 비롯해 산책로, 실내 정원 등 병원 곳곳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치유정원을 만들어 환자들이 이곳에서 심신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수국, 가우라, 에키네시아, 톱꽃 등 평소에 흔히 볼 수 없는 꽃은 물론 레몬밤, 세이지, 백리향처럼 만지면 향이 나는 허브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라일락, 병아리꽃, 남천, 조팝 등 목본류 식물 및 부레옥잠과 같은 수생식물이 연못에서 자생하고 있어 환자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나무와 풀, 꽃 그리고 사이사이에 흐르는 물이 있고,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싹을 틔웁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자연으로 들어가 산책할 수 있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마음의 심터이자 치유 장소로 이들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힐링정원



하늘정원

“여기 정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어서  
자주 산책하고 있어요”



인산관 테라스



본관

“치유정원에 앉아있으면  
이름처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예요.”



산책로



실내정원



치유정원

아름다운 환경 덕인지 많은 환자들이 일과 중에서도 특히 산책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처럼 본원은 파스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료환경과 더불어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크기 23 x 69.2cm |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 세한도(歲寒圖) 추사 김정희작

글 | 김왕수 행정부원장

그림과 글씨가 조화롭게 어울려 간략함과 절제미가 느껴지며 강직한 선비의 내면세계가 엿보이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 국보 제180호 세한도(歲寒圖)입니다.

## 작가이야기

조선 후기 충청도 예산에서 내로라하는 경주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는 추사(秋史), 완당(阮堂), 예당(禮堂) 등 1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호를 가지고 있듯이 여러 방면에서 박통하였습니다. 그가 7살 때 대문에 써 붙인 입춘첩(입춘일에 집마다 대문이나 기둥 등에 써놓은 글씨)을 보고 들른 채제공의 이야기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추사를 그의 독특한 서체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서예가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를 대표할 만한 우리나라 예술사에 여러 작품을 남긴 예술가이자 고증학, 금석학, 문자학, 사학, 지리학, 천문학, 불교학까지 박학다식했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북학파의 거장 박제가에게 수학하였고, 24세 때에는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 연경으로가 스승인 옹방강과 완원을 만나게 되면서 견문과 학식을 넓혔습니다. 그림<목란도> <목죽도>, 글<실사구시설>, 문집<완당집>, 저서<금석과안록> <완당척목> 등을 펴냈으며, 조선 고증학의 대가, 서예에서는 추사체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자와 관리로 이름을 높이던 김정희는 1840년 55세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9년 동안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마치고 귀양이 풀려 돌아왔으나 다시 정치적 모략에 휘말려 66세에는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됩니다. 다음 해에 곧 귀양이 풀려 돌아오지만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부친 김노경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하다 71세로 그곳에서 별세하게 됩니다.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1786년(정조 10년) ~ 1856년(철종 7년)

## 작품이야기

옆으로 긴 화면에는 소박한 집 한 채를 중심으로 좌우에 한 그루의 소나무와 세 그루의 잣나무만이 덩그러니 그려져 있습니다. 주위에 여백을 둔 간략한 구도로 거칠고 마른 몇 번의 붓질만이 춥고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제목도 <세한도> 추운 시절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왜 이리도 쓸쓸한 그림을 그린 것인 걸까요? 김정희가 59세인 1844년에 완성한 이 그림은 제주도 유배 당시 김정희의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입니다. 김정희의 갑작스러운 귀양생활은 명문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라온 김정희에게 쉽지 않은 일였습니다. 김정희의 주변인들은 권력에서 소외된 그를 떠났지만 제자 이상적만은 달랐습니다. 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청나라 연경에 갈 때마다 정성을 다해 귀한 책들을 구해 제주도에 보내주었습니다. 유배객 신세인 자신을 잊지 않고 사제간의 의리를 다하는, 이상적의 변함없는 태도에 감격한 김정희는 이러한 고마움의 표현을 세한도로 완성해 냈습니다.

그림 오른쪽 위에 '세한도(歲寒圖)'라는 제목과 '우선시상완당(藕船是賞阮堂)'이라는 관지가 적혀있습니다. '세한도'라는 제목은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된다"라는 논어의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여름에는 모든 나무들이 푸르지만, 추위가 오면 상록수와 활엽수가 확연히 구분되듯 사람과의 사이도 어려운 시기에 돌보인다는 것을 은유한 것입니다. 우선(藕船)은 제자 이상적의 호(號)이며, 제목과 관지를 연결해서 읽으면 "추운 시절의 그림일세, 이상적은 이것을 감상하게나! 완당"이라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진 제목을 따라오던 시선은 세로로 적힌 관지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어지면서 그림 전체를 감상하게 됩니다. 초라한 집 한 채가 놓인 부분이 중심을 이루고 소나무와 잣나무로 분할된 공간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선 소나무는 줄기가 뒤틀어지고 가지가 갈라져서 생기를 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그 옆에 선 잣나무는 줄기가 곧게 뻗어져나가 오른쪽 나무가 왼쪽 나무에 기대어 선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구석에는 장무상망(長毋相忘)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진 붉은 도장.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유배 생활에 제자 이상적과의 우정이 담겨있는 세한도, 작품의 제목과 달리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



## 소중한 딸의 직장을 다녀와서...

〈2019 신규직원 가족초청행사〉

한 아이의 부모로서 마음사랑병원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딸아이와 병원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을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사회적인 논란이 될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 혹여 내 딸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응하지 못하고 뒤쳐져 있지는 않은지, 동료에게 짐이 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되었습니다. 입사 전 딸아이가 정신과에 근무하길 희망하고 지원했을 때에는 부모로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정신 병원에 갖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딸과 싸워가면서까지 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딸이 마음사랑 병원에 합격했을 때에도 포기하길 원하는 마음에 모진 말로 상처 준적도 있었고, 병원에서 근무 중인 동안에도 그만두길 원하는 마음에 힘들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렇게 하셔도 저는 정신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기도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딸이 근무하는 병원이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의 직장에서 신규직원과 가족을 초대하는 행사를 안내하는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내 자녀가 일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행사 당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여러 선생님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딸이 근무하는 병동 및 병원 환경을 둘러보았습니다. 병동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환자들 때문에 혹여 딸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큰 편견이 막상 이들을 보게 되니 말끔하게 해소되었습니다. 평소 딸이 자주 말했던 것처럼 환자들이 참 순수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함께 일하는 병동 선생님들을 만난 후에는 안도감과 대견함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직원 가족들과의 만남을 <상견례>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이사장님의 인사말씀 속에서 직원들을 하나의 가족처럼 여겨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환경 속에서 딸이 일한다고 생각하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날의 감동적인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순서 하나까지도 세심한 배려와 의미를 담고, 정성스러운 식사와 푸짐한 선물을 비롯해 풍성한 행사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주셨을 마음사랑병원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마음사랑병원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딸아이와 병원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을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글 | 황추경 목사 [꿈빛클리닉 황다은 간호사 아버지]

# 단주만이 살길이다

글 | 햇살클리닉 전OO 환자

나는 여자 알코올 중독자다.

처음 술을 시작하게 된 것은 중2 모의고사 시험기간 중이었다. 이날은 술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로 할머니가 큰집에 가 계셨다. 홀로 집에 남게 된 나는 무섭고 두려워서 친구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전화했지만,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며 내 부탁을 거절했다. 믿었던 친구들이 원망스러웠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렇고 여러 감정으로 속이 상했던 나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대고 말았다.

집에 포도주를 담그려고 사다 놓은 소주가 있어 양치 컵에 양껏 부어서 한 모금 마셨는데, 냄새가 고약하고 맛도 쓰고 역겨워서 코를 잡고 한약 마시듯 한 번에 마셔버렸다. 외로움과 친구들의 배신, 아버지 생각에 사로잡혀 그 순간을 술로 달래고 싶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상태로 친구들을 찾아 독서실로 향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아스팔트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듯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내 몸이 붕붕 나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의 모든 기억은 나지 않았고, 이후 술을 마시면 늘 기억이 없는 지경이라 내가 알코올중독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는 알코올중독자란 매일 밤낮없이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틀렸음을 깨달았다. 술을 더 마시게 되면서 예전보다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손이 떨리고, 몸이 경직되고, 혀가 마비되는 등의 신체적인 증상과 더불어 술로 인한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직장은 물론이고 카드연체, 핸드폰 또는 지갑 분실 등 여러 일이 이어졌다.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합의를 못 본 건 별금형이 되었고, 공무집행방해까지... 남자도 아닌 여자인 내가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술을 끊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올해 2월에는 결국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게 되었다. 상해죄로 또 법적처벌을 받게 되니 너무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살인자도 될 수 있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결국 자살할 결심으로 언니한테는 외국에 돈 벌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보험, 통장을 정리했다. 어떻게 자살할까 생각하다 맨 정신에는 자신이 없어 또 술의 힘을 빌려서 손목을 그었다. 죽는 것도 쉽지 않아 언니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중독치료를 위해 OO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에선 따로 교육이나 프로그램 없이 약만 처방해주었고,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와 섞여 함께 생활하다 보니,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졌고 분노조절까지 안 되면서 자살생각이 다시 들었다.

이후 마음사랑병원이 중독치료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병동(햇살클리닉)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이곳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이전의 병원보다 더 좋은 치료 환경, 그리고 단주를 위해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중독치료센터 치료진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다. 매번 수업시간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단주'만이 살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T.A.나 A.A.모임에 참석하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회복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내가 심각한 알코올중독자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태껏 어처구니없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에 수업에서 배운 대로 자기 전에 꼭 반성의 글, 감사의 글, 단주일기를 쓰며 마음을 가다듬고 단주에 꼭 성공하리라 다짐한다.

사실 입원을 생각한 이유 중에 법적처벌을 좀 줄이는 것도 포함되었지만, 지금은 3개월 과정의 수업을 전부 이수하고 퇴원하고 싶어 재판 선고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드린 상태이다. 법원에 알코올 프로그램 일정표와 수업참여 노트까지 제출함으로써, 단주에 대한 나의 굳은 의지를 판사도 알았는지 선고일을 연기해 주었다. 향후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죄 값을 당당히 치르고 나면, 우선 단주모임에 참여할 것이고 오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며 단주에 최우선 목표를 들 생각이다. 나처럼 알코올중독으로 고생하고 마음을 다친 분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싶다. 알코올중독은 정신병도 아니고 미친것도 아니고 낙오자도 아님...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 수간호사의 '알코올 중독은 무서운 질병은 맞지만 시간이 좀 걸릴 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한다.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었고, 이제는 단주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갈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게 중독치료센터 치료진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가르친 교육과 정성 어린 치료 덕분임을 알기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늘 나의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 우리함께 삼총사, 따뜻한 회복을 노래하다

글 | 낮병원 이승연 사회복지사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한 저의 입사 첫 날은 아직도 마음 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처음 낮병원 회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던 자리에서 따뜻하고 밝은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던 낮병원 삼총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시작을 따스함으로 반겨주던 삼총사는 낮병원의 애칭인 '트리오'로도 불립니다. 각자의 특색이 확실하지만, 함께 어울렸을 때 더욱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는 남성 3인조 중창 트리오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3명의 회원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재활 과정을 함께하며 쌓은 깊은 우정을 자랑합니다. 증상으로 힘든 순간이 오면 서로의 숨소리, 존재만으로도 의지가 되어주고, 각자의 강점이 어우러져 시너지로 발휘되기도 합니다. 강한 책임감에 리더십을 겸비한 든직한 최양호님, 소리 없이 강한 외유내강의 아이콘 이정근님, 그리고 엄청난 댄스실력으로 낮병원의 분위기를 밝혀주는 긍정에너지 김학철님! 이들의 행복한 낮병원 생활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최양호 회원

### Q 낮병원 회복 과정을 통해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피해사고와 과대망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탑승한 버스에 앉아 있는 사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날 향해 비난하고 침을 뱉는다는 기분이 저의 하루를 망치곤 했죠. 또한, 나는 굉장한 부자이고 우리 집에는 수백억의 돈이 있어 큰 사업가로 성공할 것만 같은 생각들로 마음이 항상 고양된 상태였어요.

미래에 어두운 날들만 있을 것 같았는데, 낮병원 치료진과 삼총사의 일관된 신뢰는 저의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었어요. 아침 일찍 낮병원에 들어서면 언제나 활짝 웃으며 "최양호님 오셨어요? 양호님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네요."라고 말해주는 치료진들과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교차로를 떠놓고 "여기 땅 목이 좋네, 음식점 하나 지어볼까요? 내가 요리도 하고..."라는 망상 섞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치료진은 한 번의 나무람 없이 "양호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땅을 살 때 필요한 돈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대략 8시간이라고 한다면 양호님은 몇 시간 정도를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을까요?"라며 다정히 묻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에 답하며 저의 과대적인 생각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항상 심어주었죠. 지금도 피해사고와 과대망상은 남아있지만, 치료진과 대화하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증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어요. 이것이 제가 낮병원에서 회복한 가장 큰 부분이에요.

### Q 낮병원 프로그램 중 회복에 가장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저는 조용한 편이어서 정적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낮병원에서 진행하는 <합창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부터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커다란 흥미가 생겼어요! 음을 내는 것조차 왠지 쑥스럽고 떨리기만 했는데, 매 회기가 진행될 때마다 자신감이 붙더니, 이제는 알토음의 중심이 되어 소리를 이끌어 나가요. 멋진 노래를 위해 회원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갈 때, 마치 회복을 위해 서로를 이끌며 같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고, 빛나가기만 하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순간의 벅찬 마음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예요.



이정근 회원



합창 공연이 있는 날에는 회원들과 양 옆 어깨를 맞대고 앞사람과 뒷사람의 온도를 느끼며 준비된 하모니를 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면, 가슴 안에 각계 뭉쳐있던 자신감이 튀어나와요. 누군가의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게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참 소중한 경험이에요. 합창은 제가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나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최고의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 Q 삼총사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삼총사를 만나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길을 걷다 보면 환청이 심해지고, 계계 욕을 하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항상 움츠리고 시선이 떨어 바닥만 보며 걸었죠. 삼총사는 인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친구의 힘일까요? 삼총사와 함께 걷는 길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양호와 정근이형은 나의 인연이었기도 했고, <혼자>와 <친구>의 차이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진심 가득한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상을 극복 할 수 있는 내 안의 숨어 있는 힘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불안함 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먼저 찾고 삶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세상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삼총사가 나와 친구가 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고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김학철 회원

매일 아침 나란히 백팩을 메고 짜잔 등장하는 삼총사! 밝게 웃으며 머리 위로 신나게 손을 흔드는 모습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오늘은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게요."라며 병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여 증상에 쫓기지 않는 능력과, 상태가 좋을 때엔 "이승연 선생님, 힘들어요? 우리가 뭐 도와줄건 없어요?"라며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도리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삼총사! 회복을 위해 삼총사와 함께 걷는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친구 같은 지지자로 삼총사의 뒤에서 양호, 정근, 학철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사랑병원 낮병원 063-240-2288

※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드립니다.

# 그마운 사람들을 '주임간호사'



가끔 스스로 묻습니다. 600여 분의 환자가 오늘 밤도 잘 지낼거라 믿고 편한 마음으로 집에서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당직선생님과 간호사, 보호사가 함께 있음이며 그들은 듬직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병원에서의 간호사 3교대 근무는 일정을 서로 정확하게 지켜주어야만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누가 아프거나 갑자기 근무시간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서로가 기꺼이 대신하는 조직문화가 있어야 하는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365일 매일같이 동지애로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간호부서 인력 중 주임간호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병동에서 허리와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주임간호사는 5년차 이상의 검증된 인재이며,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로 배치합니다. 병동의 분위기메이커로 소통의 중심에 있어 그들을 만나면 든든함과 생동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업무적으로는 수간호사를 보좌하며 병원 정책에 맞춰 많은 일들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제 막 입사한 신규 간호사가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도움을 주는 기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수간호사를 도와 러닝메이트로 간호사와 보호사 등 동료의 작은 목소리를 전달하여 화기애애한 병동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세계에서 너무 엄격한 조직문화 덕분에 '태움'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 병원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하여서인지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사랑 문화가 있습니다. 2년차 간호사조차 1년차 간호사에게 "우리 때는~"하며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요즘, 젊은 밀레니얼 세대 간호사와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더할수록 먼저 실천하고 동료들의 속마음까지 읽어내어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함께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구성원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병원 주임 간호사들은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고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심리극, 영화치료, 중독간호사 등의 정신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조직(CoP)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자기계발비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간간이 인산홀에서 그룹스터디를 하는 간호사들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리조트로 그룹 여행을 떠나 밤새 토론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에서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로서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신규간호사가 주임이 되고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은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일터의 보람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그들이 병원의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힘찬 박수로 응원합니다^^

글 | 신정은 간호부장

## 마음사랑병원 주임간호사 다짐

### 사랑클리닉 김은애 주임간호사



낮밤이 바뀌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간호 업무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심신치료센터 정의성 주임간호사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후임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차가 오르고 주임간호사가 되면서 아래 연차 간호사들이 힘들지는 않나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신치료센터가 타 병동보다 근무 난이도가 높은 병동으로 평가되는 만큼 더욱 후임간호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원클리닉 김소리 주임간호사



제가 마음사랑병원 치매병동 원클리닉에 왔을 때가 15년도 봄이었는데, 벌써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한지 거의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치매는 만성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우나 적절한 치료진의 개입과 돌봄이 있다면 충분히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변화가 다양한 치매어르신들에게 치료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임간호사가 되었습니다.

### 꿈빛클리닉 김소영 주임간호사



책임간호사의 위임을 받아 스텝간호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확인하는 등 쉽게 말해 책임자와 스텝간호사의 중간 메신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와 관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 중독치료센터 김정은 주임간호사



처음 '주임간호사'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책임감으로 부담감이 커진 반면, 정신과 간호사로서 더 성장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간호사 수련과정을 하면서 정신과 환자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주임간호사로서 당직 시에도 정신과 환자들의 가족이 가진 어려움과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멋진 상담자로서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 마음클리닉 장유미 주임간호사



신규간호사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사랑병원에서 어느덧 9년 차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후배간호사에게 정신간호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으로 교육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병동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후배양성에 힘쓰겠습니다.

### 중독치료센터 이지연 주임간호사



'잠'과 '잠'을 이으면 '산'이 되듯이,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전환'점을 이끌어 새로운 '시선'을 만들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햇살클리닉 조아라 주임간호사



마음사랑병원과 함께한 시간 동안 환자분과 함께 웃기도하고 울기도하며 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추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믿음직한 간호사, 함께 의지하며 일할 수 있는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신치료센터 박민실 주임간호사



저희 심신치료센터는 급성기 초진 환자분들이 많은, 마음사랑병원의 첫인상 같은 병동입니다. 시작을 책임지는 병동인 만큼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책임자와 일선 스텝간호사와의 중간역할로서 병동, 환자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중독치료센터 강혜진 주임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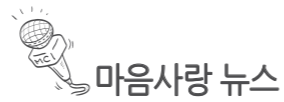
사람에게 어떤 충고나 비난, 조언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은 공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 귀담아들으며 동료는 물론 환자를 진정성있게 공감할 수 있는 주임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꿈빛클리닉 김은진 주임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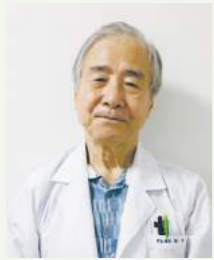


올해 주임간호사로 임명받은 김은진 간호사입니다. 아직은 '정신간호사로서의 자질이 충분인가'라는 물음표를 찍고 있을 시기인데, 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직책을 떠나 간호사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책임감과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환경에서 가끔은 잊어 버리기도 하는 것들이지만, 저에게 직책이 주어진 만큼 그에 맞는 각오를 하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Maeumsarang News



## 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시작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황수택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 미네소타대학 정신과 교수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 미국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 미네소타대학 정신과 전공의 수료

전문분야 | 우울증, 정동장애, 중독정신의학

## 마음사랑병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6월 13일 마음사랑병원과 소양 119 안전센터는 본원 중독치료센터 및 그린필드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실전훈련과 효과적인 대응훈련을 목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소방훈련에서는 소양 119 안전센터 방호구조팀의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방법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져, 화재상황에 대비한 실전실습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본원 직원과 환자들은 화재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마음사랑병원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식 진행



전북지역 저소득층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본원과 전북광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약식이 6월 19일 마음사랑병원 인산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자활센터 참여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계·의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협조를 도모하고 관련된 교육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정신건강증진과 자타해 예방 그리고 교육 제공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마음사랑병원 전인화교육 21기 수료식 진행



<전인화교육 21기 수료식>이 7월 9일 본원 중독치료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전인화교육은 중독 환자들의 음주와 관련된 잘못된 습관, 행동 그리고 사고 등을 바로 잡아, 사회에 기여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알코올치료교육이다. 이번 수료식에는 12주간의 과정을 이수한 1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으며, 21기까지 총 8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이처럼 본원 중독치료센터는 음주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를 회복의 길로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음사랑병원 2019 상반기 인산인 및 모범직원 표창



마음사랑병원은 '인산인(仁山人)'과 '모범직원' 그리고 '서비스 우수부서'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인산인'은 병원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선발하여 상패와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이견학 진료부장이 선정되었다. 이처럼 본원은 매년 상·하반기와 분기별로 다양한 직원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 결산 수상자

**인산인** : 이견학 진료부장

**모범직원** : 간호부 정의성 / 조아라 / 이민정 간호사, 이승연 사회복지사, 홍선우 보호사, 공공사업팀 임솔미 사회복지사, 약제팀 강원화 간호조무사

**서비스 우수부서상** : 사회사업팀, 마음클리닉

마음사랑병원 제13회 마음사랑 장학금 수여식 진행



〈제13회 마음사랑 장학금 수여식〉이 7월 24일 본원 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마음사랑 장학금'은 전북지역 정신장애인 자녀들이 학업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후원사업으로, 이번 수여식에서는 학업을 지속하는 정신장애인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3명을 선발하여 총 43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수여하였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 하여

올해로 13회째 진행되는 마음사랑 장학금 수여식은 현재까지 194명의 청소년에게 6,8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매월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재 / 단 / 소 / 식

노인요양시설 사랑드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사랑드림은 직원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치료진과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의 수행으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운동회는 <고무신 멀리 던지기>, <종이컵 탑 쌓기>, <휠체어 경주> 등 어르신의 신체 활동을 고려한 유쾌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이날의 추억이 어르신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바래본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동료지원가 활동 진행



아름다운세상 회원들이 동료지원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료지원가'란 정신 질환으로부터 회복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한다. 회원들은 마음사랑병원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한사랑과 마음사랑의 집, 정신요양시설 정심원 등에서 재활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과 교육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정신장애인 동료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함께 공감하며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 LH임대아파트 입주자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센터는 7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남북권주거복지지사와 ‘임대주택 입주자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임대주택 내 정신건강위기 입주자에 의한 공동생활 위협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 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정읍시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약 3000세대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자살 및 우울증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2019년 마을지킴 프로젝트 ‘정신건강 보듬 마을 협약식’ 진행



센터는 7월 18일 봉동읍 신상마을 및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와 ‘정신건강 보듬 마을 4호점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마을지킴 프로젝트 <정신건강 보듬 마을>이란, 정신건강 문화예술서비스와 지역사회기관 협력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 공동체 정신건강 증진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인디밴드 문화공연, 힐링 영화 산책 등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지역사회기관 협력서비스와 정신건강 문화예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 도내 노인복지관 치매파트너 플러스 대상 치매파트너 교육 실시



지난 7월 4일과 24일,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금강노인복지관과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파트너 플러스를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 두 기관에서는 센터가 개발한 인지증재프로그램인 ‘뇌운동프로그램 인지훈련매뉴얼’과 ‘두뇌넉넉’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파트너 플러스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인지증진 프로그램 보조 활동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파트너 활동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센터는 치매파트너 플러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치매파트너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우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는 동반자  
치매파트너 플러스 : 치매파트너 중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 치매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어울림’ 시범운영



올해 3월부터 센터에서는 치매가족자조모임 <어울림>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발간한 치매가족 자조모임 가이드북 ‘어울림’에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의 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4곳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가족 간의 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마음챙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방법> 등 2회기 프로그램을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센터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낮추고 가족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마음사랑병원 월례교육 & 가족교육



## 월례교육 7월

### 마음챙김과 긍정심리

7월 교육은 <마음챙김과 긍정심리>의 주제로 김정호 교수가 진행하였다. 이날 김정호 교수는 마음공부를 통해 행복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마음기술(마음을 다루고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마음기술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마음챙김' '명상' '긍정심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일상의 명상과 마음챙김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이번 교육을 통해 외부환경에 쉽게 마음이 동요되기 보다는 성숙한 자세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انسان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가족교육 6월

### 정신과 약물의 이해 및 올바른 복용법

6월은 <정신과 약물의 이해 및 올바른 복용법>을 주제로 박준 진료과장이 교육하였다. 박준 과장은 가족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과 약물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정신과 약물의 작용을 이해해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가족교육 7월

### 마음사랑 병동별 치료 과정

7월 가족교육은 <마음사랑 병동별 치료 과정>을 주제로 신경은 간호부장이 진행하였다. 강의에서는 최선의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7개로 분리된 본원의 병동별 특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퇴원 후 낮병원의 체계적 재활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마음사랑병원 셔틀버스 운행안내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마음사랑병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셔틀버스(낮병원 포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병원 출발	08:30	08:40	09:30	10:20	10:45	11:45	12:20	13:30	14:00	14:30	15:30	16:10	16:45
소양(면사무소)													
고려병원 앞													
안골(파리바게트)													
모래내(농협)	08:55		09:55		11:10	12:10		13:55		14:55	15:55		17:10
안골(향연유외과)	09:00		10:00		11:15	12:15		14:00		15:00	16:00		17:15
수한방 병원 앞(고려병원 건너편)	09:04		10:04		11:19	12:19		14:04		15:04	16:04		17:19
소양(농협)	09:11		10:11		11:26	12:26		14:11		15:11	16:11		17:26
병원	09:15		10:15		11:30	12:30		14:15		15:15	16:15		17:30
전주역(웨딩의전당 건너편)		08:55		10:33			12:33		14:13				16:27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08:57		10:35			12:35		14:15				16:30
안디옥 교회 정문		09:00		10:36			12:36		14:16				16:31
전주덕진소방서 옆(전주시 재활용센터)		09:03		10:37			12:37		14:17				16:32
롯데렌터카 전주지점(삼성증권 전주지점 옆)		09:10		10:43			12:43		14:23				16:38
고속버스터미널(택시승강장 건너편 천변)		09:12		10:44			12:44		14:24				16:41
시외버스터미널(중앙병원)		09:15		10:46			12:46		14:26				16:43
한국은행 옆(공간타일도기)		09:20		10:50			12:50		14:30				16:45
모래내(농협)		09:25		10:55			12:55		14:35				16:50
안골(향연유외과)		09:28		10:58			12:58		14:38				16:53
북일초등학교 정문(수협)		없음		11:00			13:00		14:40				없음
대자인 병원 정문(자인약국)		09:31		11:02			13:02		14:42				16:56
전주역 건너편(서강재활사)		없음		11:03			13:03		14:43				없음
굴다리(CU 편의점)		09:35		11:07			13:07		14:47				16:58
병원 도착		09:45		11:20			13:20		15:00				17:10

\*공휴일은 운행되지 않으며, 토요일은 오전까지 미니순환버스만 운행됩니다. (미니순환버스: 1, 3, 5, 6, 8, 10, 11, 13회/대행버스: 2, 4, 7, 9, 12회) \*운행 시간표 및 노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63-240-2100)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평화동방면)

노선	1회	2회	3회	4회
병원 출발	8:40	10:20	14:15	16:10
슈퍼동 나이트	8:51	10:31	14:26	16:21
아중리 지하보도(파리바게트)	8:53	10:33	14:28	16:23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8:56	10:36	14:31	16:26
현대자동차(KT 옆)	9:00	10:40	14:35	16:30
경원동 기업은행	9:04	10:44	14:39	16:34
남문치과	9:06	10:46	14:41	16:36
서서학동 화신탕	9:08	10:48	14:43	16:38
평화동 지하보도(전주농협)	9:10	10:50	14:45	16:40
티파니힐	9:12	10:52	14:47	16:42
광진공작아파트 버스 승강장	9:15	10:55	14:50	16:45
남양향실아파트 버스 승강장	9:18	10:58	14:53	16:48
화산체육관 버스 승강장	9:22	11:02	14:57	16:52
한일고 지하보도	9:25	11:05	15:00	16:55
금암동 우성 밧데리	9:27	11:07	15:02	16:57
전북은행 본점 버스 승강장	9:31	11:11	15:06	17:01
전북대병원 입구 버스 승강장(금암고물상)	9:34	11:14	15:09	17:04
대자인병원 응급실	9:37	11:17	15:12	17:07
전주역(서강재활사)	9:39	11:19	15:14	17:09
굴다리(CU 편의점)	9:42	11:22	15:17	17:12
병원 도착	9:50	11:30	15:25	17:2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